

#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Victimization by Peers to Loneliness in Adolesc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 교 수 도 현 심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 Hyun-Sim Doh

###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 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shyness, sociability and self-disclosure and victimization by peers to loneliness in adolescents were examined with a sample of 485 second-grade highschool students(256 boys and 229 girls). They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n loneliness as well as shyness, sociability, self-disclosure, and victimization by peers.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neliness. The more shy they were and the more victimization by peers they experienced, the more lonely they were. The more sociable they were and the more self-disclosure they showed, the less lonely they were. All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loneliness and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loneliness was victimization by peers,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victimization by peers on loneliness is so powerful for the adolescents.

### I. 서 론

외로움은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정서로서,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발달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더 보편적이다. 미국에서 대규모로 조사된 결과에서, 20-50% 정도의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nnan,

1982). Sullivan(1953)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기 직전에, 인간은 외로움을 의식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의식은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Sullivan이 이론화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교우관계가 보다 더 중

요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만한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쉽다(Woodward, 1988).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Peplau & Perlman, 1982). 첫째, 외로움은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초래된다. 둘째, 외로움은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외로움이라는 경험은 불유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해 볼 때, Weiss(1973)가 정의하였듯이,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은 단지 홀로 있음(solitude 혹은 aloneness)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의 기능적 붕괴(functional disruption)를 의미한다. 외로움은 보편적이지만 심각한 형태의 심리적 불편함과 지속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그나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도현심, 1996; 정영인, 1988)를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선영, 1998; 박선영, 도현심, 1998)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외의 경우,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여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외로움과 관련되는 사회적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어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외로움은 청소년 비행(Brennan & Auslander, 1979)이나 자살(Diamant & Windholz, 1981; Tabachnick, 1981)과 같은 심각한 행동들을 비롯하여, 우울증(Kaiser & Berndt, 1985; Moore & Schultz, 1983), 신경성 식욕부진(Gilbert & DeBlasse, 1984)과 大食症(bulimia)(Muuss, 1986)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Inderbitzen-Pisaruk, Clark, & Solano, 1992,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로움이 모든 정신병리의 통합적인 요인이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에서 많은 인간행동의 중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음을 밝혀준다.

어떤 사람은 대인적 상황에서 반응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해 외로움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Stroke, 1985), 외로움은 개인의 특별한 인성특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예측되고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의 특성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성취되는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상에 기여하며(Jong-Gierveld, 1987), 만족스런 관계망을 만들고 지속시키는 것을 촉진 혹은 저지함으로써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Peplau & Perlman, 1982). 개인의 인성특성들 가운데 특히 수줍음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며,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Weiss, 1982). 수줍음은 낯선 사람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거나,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지며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표현된다(Buss, 1980). Zimbardo(1977)에 의하면, 수줍은 학생들은 낯선 사람들이 곁에 있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특히 불안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수줍은 학생들은 사람을 새로 사귀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줍음이라는 특성은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낳기가 쉽다. 실제로,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집단에 참여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Inderbitzen-Pisaruk,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일치하였다(도현심, 1996). 수줍음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Anderson & Harvey, 1988; Cheek & Busch, 1981)에서도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수줍음과 외로움간의 관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줍음과 대조적인 특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구분되는 또 다른 인성특성으로 밝혀진 바 있는 사회성(Cheek & Buss, 1981) 역시 외로움과 관련시킬 수 있다. 수줍음이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수줍은 사람들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긴장하거나 억제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회성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홀로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Buss, 1980). 수줍음과 달리 사회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이러한 사회성의 정의를 비롯하여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에 기초할 때 양자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예측된다.

외로움과 관련되는 또 다른 인성특성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인성특성은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이다. 자기노출은 개인적인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노출은 대인간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만족스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대인간의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며 건강한 인성의 필요조건이다(Altman & Taylor, 1973). 타인에 대한 솔직한 자기노출의 부족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대인적 부적응을 야기한다(Carpenter & Freese, 1979). 외로움 역시 자기노출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 정서상태 중의 하나로서 대체로 일관되게 그 관련성이 보고된다. 외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며 자신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Russell, Peplau, & Ferguson, 197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erg와 Peplau(1982)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여대생들의 자기노출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어, 자기노출을 덜 할수록 그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자기노출과 외로움간의 이러한 부적인 관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Franzoi와 Davis(1986)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종의 사회적 기술로 여겨지는 수

줍음 및 사회성이나 자기노출과 같은 인성특성 외에, 또래관계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또래 관계에서의 경험 가운데,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이라는 용어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국외에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또래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또래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즉 또래학대(peer abuse)의 형태"를 의미한다(Olweus, 1991). 여기서 또래 공격에는 신체적 공격을 비롯하여 정서적,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다.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분포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8~16세 아동들 가운데 약 9~10%가 급우들로부터 일상적으로 놀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1; Perry, Kusel, & Perry, 1988).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 역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Perry et al., 1988).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데 있어 그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Chelune, 1977; Jones, Freeman, & Goswick, 1981;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실제로, Boulton과 Underwood(1992)는, 학령기 동안 또래들에 의해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감, 불안감 및 외로움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로움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또래폭력과 같은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시켜보는 일은 더욱 유의 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이루어진 외로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외로움이 청소년기에 매우 보편적임을 지적한다(Russell et al.,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 후기를 대상으로 하여 17-18세 이전 시기의 청소년 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대해

서는 연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고등학교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기의 경우, 또래와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중기의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중기에 속하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줍음, 사회성,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예측변인들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통해, 이들 가운데 청소년의 외로움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강북지역에서 선정한 두 곳의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485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남학생: 256명; 여학생: 229명)이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기존의 국외연구들(Brage et al., 1993; Moore & Schultz, 1983)에서 청소년기는 외로움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시기로 보고되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비롯하여 수줍음, 사회성, 자기노출, 그리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들로 구성된다. 각 질문지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서, 각 특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 1)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은 Russell과 동료들(1980)의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Russell과 동료들(1978)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것으로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다(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와,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 여부와 관련됨). 문항의 예로서,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도 개정 당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alpha = .90$ 로서 이와 유사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1>).

### 2) 인성 특성

#### (1) 수줍음 및 사회성

수줍음 및 사회성은 Cheek과 Buss(1981)가 개발한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줍음(9문항)과 사회성(5문항)의 두 개 요인이 Cheek과 Buss에서와 일치하여 구분되었다. 수줍음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사람들을 사귀는 데 다소 서투르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이 된다.' 등이 포함되며,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사회성 문항의 예로서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을 들 수 있으며,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표 1>).

#### (2)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은 Miller, Berg와 Archer(1983)가 개발한 Self-Disclosure Index(SDI)를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SDI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지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질문지이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습관들을 말한다.' '내가 한 일들 중에서 최

의식을 느끼는 일들을 말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자기 노출을 조사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8로서 높은 수준이었다(<표 1>).

3) 또래에 의한 괴롭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Perry와 동료들(1988)이 개발한 MPNI(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 가운데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련된 7개의 문항을 변안하여 조사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다.' '아이들은 나에게 심술궂게 행동한다.' 등이 포함된다. Cronbach's는 .83이었다(<표 1>).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외로움	20	.90
인성특성		
수줍음	9	.81
사회성	5	.83
자기노출	10	.88
또래에 의한 괴롭힘	7	.83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0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조사용 질문지들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또 다른 두 곳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용 질문지들은 교사들을 통해 남녀 각각 300명씩 총 600명의 남녀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배부된 질문지들은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가운데 58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7%), 부적합한 질문지(95부)를 제외한 48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변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수줍음, 사회성,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그리고 외로움 등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은 다소 낮은 정도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서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표 2>).

수줍음, 사회성,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등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는 사회성과 자기 노출간의 관계이었다( $r=.42, p<.001$ ). 그 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14 \sim .30, p<.001 \sim .01$ ).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수줍음,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사회성과 역상관을 보였다.

또한, 수줍음, 사회성,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과  $r=.41 \sim .45(p<.001)$  정도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줍음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과 비슷한 정도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각각  $r=.45$ 와  $.44, p<.001$ )를 보였으며, 사회성 및 자기 노출은 같은 정도( $r=-.41, p<.001$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청소년들은 수줍음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할수록 외로움을

<표 2>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485)

	1	2	3	4	5
1. 수줍음	-				
2. 사회성	-.27***	-			
3. 자기노출	-.22***	.42***	-		
4. 또래에 의한 괴롭힘	.30***	-.17***	-.14**	-	
5. 외로움	.45***	-.41***	-.41***	.44***	-

\* $p<.01$  \*\* $p<.001$

많이 느꼈으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노출을 많이 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꼈다.

## 2.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외로움간의 관계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가운데 외로움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줍음, 사회성, 자기 노출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살펴본,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표 2>), 모든 독립변인들은 외로움을 유의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beta = .29, p < .001$ ). 이 변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변량의 42%이었다(<표 3>).

<표 3>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중다회귀분석

	B	$\beta$
인성특성		
수줍음	.21	.26***
사회성	-.13	-.19***
자기노출	-.17	-.23***
또래에 의한 괴롭힘	.23	.29***
R <sup>2</sup>	.42	
F	86.64***	

\*\*\*,  $p < .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줍음, 사회성 및 자기 노출 등의 인성특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또래경험이 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인성특성들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인성특성들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수줍음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기 노출을 덜 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수줍음과 외로움간의 정적인 관계는 수줍음이 아동 후기의 아동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양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 도현심(1996)과 일치한다. 이처럼 아동 후기에서 발견된 결과가 청소년 중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 점은 외로움에 있어서 수줍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시사한다. 또한 수줍음과 외로움간의 관계는 수줍음과 유사한 특성으로 잘 알려진 내향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박선영, 1998; Hojat, 1982; Peplau & Perlman, 1982)과도 일치한다. 사회성의 경우, 사회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수줍음과 사회성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성은 타고난 기질특성이고 수줍음은 그 유도체라는 점에 근거할 때(Buss & Plomin, 1984), 수줍음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 사회성이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성 및 외로움의 의미에 근거할 때, 사회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냄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 노출과 외로움간의 부적인 관계는 친구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들(Franzoi & Davis, 1985, 1986; Solano, Batten, & Parish, 1982)과 일치한다. 또래에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홀로 고립되기보다는 또래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게 되고,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계는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불행함이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Boulton과 Underwood(1992)와 일치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이 시기에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또래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수줍음, 사회성 및 자기 노출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등의 변인들이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외로움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는 수줍음, 자기 노출 그리고 사회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외로움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 들어 특히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문제가 청소년의 발달에 얼마나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실제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심하게 거부되거나(Hodges, Malone, & Perry, 1997),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으로(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보고하였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이어 수줍음이 외로움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결과는 내향성, 신경증적 경향, 자기 노출, 및 자아 존중감 등과 같은 인성 특성들 가운데 내향성이 외로움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박선영(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롭다. 즉, 수줍음이 내향성과 같은 소극적인 대인 관계 특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로움을 쉽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적극적인 특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커다란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쉬우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또래 경험을 또래 평가나 교사 평가 등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 보고에만 의존한 점과 외로움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서 그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또래 관계가 활발한 청소년기에 속한 남녀 고

등학생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기 쉬운 외로움을 주제로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몇편 안 되는 국내 연구의 결과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됨으로써, 외로움의 관련 변인들이 여러 발달단계에 걸쳐 상당히 지속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성 특성들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본 연구결과가 국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점을 통해, 국내의 경우 특히 학업적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외의 경우와 문화적 차이가 현저한 발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상태는 유사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성 특성들과 또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양자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인성 특성보다도 외로움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밝혀짐으로써,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발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 ■ 참고문헌

- 1)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33-45.
- 2) 박선영(1998).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아동학회지*, 19, 229-244.
- 4)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Altman, I. & Taylor, D.(1973). Social penetration:

-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6) Anderson, C.A. & Harvey, R.J.(1988). Discriminating between problems in living: An examination of measures of depression, loneliness, shynes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Psychology*, 6, 482-491.
  - 7) Berg, J.H. & Peplau, L.A.(1982). Loneliness: The relationship of self-disclosure and androgyn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624-630.
  - 8) Boulton, M.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9)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 685-694.
  - 10)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69 ~290). New York: Wiley.
  - 11) Brennan, T. & Auslander, N.(1979). *Adolescent loneliness: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spositions and theory*(Vol. 1).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Juvenile Problems Division.
  - 12) Bukowski, W., Newcomb, A., & Hartup, 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3) Buss, A.H.(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W.H. Freeman.
  - 14) Buss, A.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15) Carpenter, J.C. & Freese, J.J.(1979). Three aspects of self-disclosure as they relate to quality of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 78-85.
  - 16) Cheek, J.M. & Busch, C.M.(1981). The influence of shyness on loneliness in a new sit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72-577.
  - 17) Cheek, J.M. & Buss, A.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18) Chelune, G.J.(1977). Disclosure flexibility and social-situ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39-1143.
  - 19) Franzoi, S.L. & Davis, M.H.(1985).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loneliness: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68-780.
  - 20) Franzoi, S.L. & Davis, M.H.(1986). Adolescent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95-608.
  - 21) Hodges, E., Malone, M., & Perry, D.(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22) Hojat, M.(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selected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37-141.
  - 23) Inderbitzen-Pisaruk, H., Clark, M. L., & Solano, C. H. (1992). Correlates of loneliness in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151 ~167.
  - 24) Jones, W.H., Freeman, J.E., & Goswick, R.A.(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 27-28.
  - 25) Jong-Gierveld, J.(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128.
  - 26) Moore, D. & Schultz, N.R.(1983). Loneliness and adolescence: Correlates, attributions, and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95-100.
  - 27)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Peplau, D.J. & Rubin, K.H.(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28) Peplau, L.A., & Perlman, D.(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20). New York: Wiley.
- 29) Perry, D.G., Kusel, S.J., & Perry, L.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30)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31) Russell, D., Peplau, L., & Ferguson, M.(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Assessment*, 42, 290-294.
- 32) Solano, C.H., Batten, P.G., & Parish, E.A.(1982). Lonelines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24-531.
- 33) Stroke, J.P.(1985). The relation of social network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to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981-990.
- 34)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35) Weiss, R.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36) Weiss, R.S.(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71-80). New York: Wiley.
- 37) Woodward, J.(1988). *The solitude of lonelin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38) Zimbardo, P.G.(1977). *Shyness*. Reading, MA: Addison-Wesley.